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일　　시 : 2021년 **3**월 **6**일(음 1월 23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 참 금 : **2**만원

법주사 산신대재

■ **산신기도입재** : 2021년 **4**월 **21**일(음 3월 10일) 수요일

■ **산신기도회향** : 2021년 **4**월 **27**일(음 3월 16일) 화요일

■ **동　참　비** : 3만원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 **공양물 올려드립니다.**

■ 공양미 : 20kg 6만원 / 10kg 3만원　　■ 국　수 : 1박스 4만원

■ 미　역 : 1kg 2만 5천원　　■ 과일 / 떡 / 채소 등 공양시주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별도의 차량운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연등 모연문

신축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속리산 법주사 청정도량에 자비의 등불을 밝히려고 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등불공양의 공덕으로 진리의 법광이 비추어 업장이 소멸되고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대웅전 대등** : 100만원　■ **대웅전 연등** : 30만원　■ **미륵전 대등** : 30만원

■ **능인전 합격발원 사업번창 특별등** : 20만원

■ **법당일년등(삼성각, 명부전, 약사전, 미륵전)** [명부전 : 생축등, 영가등(돌아가신분)] : 10만원

■ **일일사업등** : 10만원 이상　■ **일일등** : 3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스승과 제자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고 받드는 데에는 예가 있다.

스승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살펴 바치고, 항상 예로서 공경하고 받들어야 하며,

스승을 존중하고 우러러야 하며, 스승의 가르침이 있으면

어김이 없이 실행해야 하며,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잘 새겨야 한다.

그리고 스승이 제자를 보살피는 데에도 예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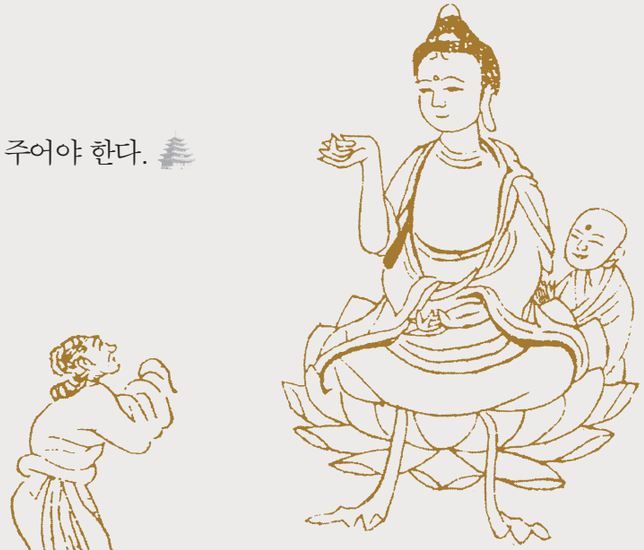
제자를 규칙에 따라 보살펴야 하며, 제자가 듣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고,

제자가 묻는 바를 알게 해 줄 것이며,

제자에게 착한 것을 보여 주고,

제자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다 가르쳐 주어야 한다.

– 선생경 –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1 3 | 통권 350호



2 부처님 말씀 스승과 제자

4 이달의 법문 庚子年 冬安居 解制 法語 법주사 조실 월서 대종사

12 주지스님 법문 가장 큰 장애 정도 스님

14 감로의 글 십지경을 연재하며(1) 두진 스님

18 걸망메고 불상 구분하는 법 진정 스님

20 수행여화 설중방우雪中訪友 현진 스님

22 법주사 소식 – 승가대학 졸업식

23 법주사 소식 / 법주사 행사일정

24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법주사 산신대재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연등 모연문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5(단기4354)년 3월호 통권 350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도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경 / 편집위원 · 임성제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庚子年 冬安居 解制 法語

월서 대종사 법주사 조실



오늘이 경자년 동안거 해제날입니다.
이 해제란 本參公案인 화두를 타파한 자력해탈인 것입니다.
진정한 해제는 형식과 외모에 나타난 이것이 없는 곳에 진정한 해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확진자가 1억명이 넘게 나오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망자가
200만을 넘어 300만을 치닫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무서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원에서 수행정진 잘하고 해제를 맞이하는 대중에게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원각경에 一切衆生 本來成佛 生死涅槃如昨夢 이라
무한한 대생명에 귀일부합하는 순간을 성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정법신에 어찌 생사가 있을 수 있으며 장단이 있을 수 있으며
거래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 오가해 첫머리에서 함허득통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先天地而無期始
後天地而無期終

천지보다 먼저라도 그 비롯함이 없고
천지보다 뒤에라도 그 마침이 없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永遠, 湛寂, 無古, 無今 이란 말도 있습니다.
유한의 생명을 벗어나 무한의 생명을 얻으려는 이것이 수행의 목적이며
또한 무한의 생명에 합일되는 것을 성불이라 하는 것입니다.

東風雖冷釀花意
小澗淺流入海心

봄바람이 비록 차가우나 꽃을 피울 뜻이고
작은 시내는 얕게 흐르나 바다에 들어갈 마음이다.

一超直入如來地
眾生成佛刹那中

피안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극히 간단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가진 어리석은 생각들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피안인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을 각자 모두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고 밝은 것처럼 생각하고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욕심을 도에 넘게 부리고 하찮은 일에 성을 잘 내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자라고
기만과 모략을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면 우리들의 마음속은 오직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부처가 되는 피안이라고 한 것입니다.
해제 만행 기간 중이라도 본참공안인 화두를 항상 챙겨야 할 것입니다.
不是心, 不是物, 不是佛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고?
또 각자 익혀온 화두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화두가 純一無雜해서 疑心이 더 나아갈 수 없고 더 이상 간절할 수가 없어서
打成一片이 되면 銀山鐵壁이 무너져서 화두가 타파되어서 확철대오인 생사 해탈한 것입니다.
은사이신 금자 오자 큰스님께서는 오도송에서

透徹十方界
無無無亦無

시방세계를 투철 하고나니
없고 없는 것 또한 없구나.

個個只此爾
覓本亦無無

날날이 모두 그러하기에
아무리 뿌리를 찾아봐도 또한 없고 없을 뿐이다.

深入心體忽然覺
十方世界唯心体

깊이 마음의 본체에 들어가면 홀연히 깨닫게 되나니
시방세계는 오직 마음에 본체만 있다.

從此萬法我作用
頭頭皆是靈明體

이 만법을 좇아 내가 작용한다면
사물 모든 것이 영명한 본체이다.

佛身如虛空
徧照於十方

부처님 몸은 허공과 같아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나니

若人見得佛
佛受一切苦

만약 사람이 불법을 얻는다면
일체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我有眞空無事禪



巖前倚石打閒眠

내 진공묘유를 가졌으니 선 또한 무사하고
바위 앞에 기대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노라.

請君仰面看虛空
廓落無邊不見蹤

그대여 고개를 들어 허공을 보게나
확 트이고 끝이 없어 자취도 뵈지 않네.

若解轉身些子力
頭頭物物總相逢

만약 몸을 움직이는 사소한 것이 제 힘임을 깨닫는 다면
두두물물 그 본체의 본성을 만나리.

出家爲僧者는 斷欲去愛요.
識自心源이면 達佛深理라
悟佛無爲하야 名曰爲僧이라.

스님께서는 출가하여 僧이 된 자는 욕망을 끊고
애욕을 버리는 것을 스스로 심원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깊은 이치를 통달하고 부처님의 무위를 깨달으면
승려가 되었다고 이름한다.

天飜地轉破疑團

하늘을 뒤집고 땅을 구르듯 의심 덩어리를 깨부수니

一點靈明通宇宙

한 점의 영명함이 우주를 관통하네.

虛空粉碎皆眞面

허공을 잘게 부수니 모두가 진면목이네
가사를 입고 대도를 밝히지 못하면 이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靑山大不動
白雲自去來

푸른 산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흰 구름 스스로 가고 오네.

生死本無死
月落不離天

생사는 본래 죽음이 없고
달은 물에 떨어지지만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

一燈能破千年暗
一智能滅萬年愚

비유컨대 한 등불이 천년의 어두움을 능히 깨부술 수 있고
한 지혜가 만년의 어리석음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生從來處淸風起
태어남이란 맑은 바람이 일어남이요.

死去淸湖月影沈

죽음이란 맑은 호수에 달이 잠기는 것이다.

不須撈摝水裏月

물속에 달을 찾으려고 휘저을 필요 없네.

誰敢縛住虛空風

누가 감히 허공의 바람을 묶어 둘 수 있으랴?

竹影掃階塵不動
月穿潭底水無痕

대나무 그림자가 뜰을 쓸어도 티끌은 움직이지 않고,
달빛이 못 바닥을 사무쳐도 물에는 흔적이 없다고 한 말은 분명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시간과 공간에 초월된 결제가 아니면 결제라 볼 수 없을 것이며 宇宙와 乾坤밖의 격외적인 해제가 아니면 해제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실한 수행과 알찬 정진을 더욱 가중하기 위해 무형한 가운데서 유형한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 한다지만 우리들에게는 기간이란 것이 있을 수 없으며 한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입정 출정 있을 수 없고 입선 방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부단한 정진과 수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생사의 무서운 윤회가 굽이치는 여기를 어떻게 해야 건너갈 수 있을까?
無常殺鬼의 무서운 迫擊과 三界火宅의 뜨거운 暗夜를 어떻게 해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제를 해제로 생각하는 안일과 해태, 이것은 오히려 구도의 전진에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며 생사 고통에 있어 지대한 풍랑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자유 속에서 얻어지는 해제 대생명 속에서 얻어지는 해제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해제일 것입니다.
이번 안거에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수행정진을 잘했습니다.
주지스님과 소임자 스님들이 외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장 큰 장애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각자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이
큰 장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굳어지면서 생겨나는 견해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수행은 우리가 믿고 있는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십지경(Daśabhūmika sūtra)을 연재하며(1)

두진 스님 법주사 교무국장

"십지경(Daśabhūmika sūtra)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현대적 수행체계"라는 제목으로 대방광불화엄경 가운데 십지경을 초지인 환희지부터 제10지 법운지까지를 간략하게 연재하려 한다. 이는 대방광불화엄경의 광대한 세계를 다 읽어 본다는 것은 보통의 불자들로써는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넓고 넓은 화엄의 세계를 불자들께서 조금이라도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십지경십지경 (Daśabhūmika sūtra)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현대적 수행체계

화엄경의 원명은《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Avatamsaka-sutra)[1]》이며, 418~420년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 Buddhabhadra: 覺賢)에 의해 한역된 60권본과 695~699년 실차난타(實叉難陀 Siksananda)에 의해 한역된 80권본, 반야般若가 번역한 40화엄 등의 세 가지본이 전해지고 있다. 티베트어 번역본이 완본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산스크리트 원본은 십지경과 입법계품만 현존하고 있다. 40화엄인 입법계품에서는 선재동자가 53선지식에 만남을 통한 실천적 수행을 다루고 있다.

60화엄경을 분석해보면은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세간정안품에서 노사나품까지의 서론부분이고,

둘째는, 명호품에서 현수품까지 문수보살 중심의 장엄이 되며,

셋째는, 승수미정품에서 십지품까지 십지품 위주의 경전이다.

넷째는, 십명품에서 이세간품까지의 보현보살 중심으로 경전이 장엄되고,

다섯째는, 입법계품이다. 그런데 십주, 십행, 십회향은 원래 십지경으로부터 파생한 것이며, 십지품을 중앙에 전후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장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대화엄의 핵심으로 모태가 되는 것이 바로 십지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십지경(Daśabhūmika sūtra)은 Daśa(10)+bhūmi(地, 각각의 선정 경계)+ika(그것에 속함)으로해서 십지경이 되며,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른 현대적 적용에 대한 것을 자비심과 지혜심, 그리고 원력심으로 간략한 결론으로 제시하려 한다.

1) Buddha avataṃsaka-Māhavaipulya sūtra(불보살들에 의해 장엄된 크게 확장된 경)

Ⅰ. 환희지(歡喜地, PramuditāBhūmi)[2]

1) 어떤 근본(體)에 의지하는가

"불자여, 만약 어떤 중생이 선근을 깊이 심으면 모든 행行을 잘 닦으며, 도道를 돕는 법을 잘 모으며, 모든 부처님께 잘 공양하며, 청정한 법을 잘 쌓으며, 선지식을 잘 거두어 주심이 되며, 깊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며, 광대한 뜻을 세우며, 광대한 지혜를 내며, 자비가 앞에 나타나느니라."

2) 무슨 뜻을 위한 것인가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함이며, 열 가지의 힘을 얻으려 함이며, 크게 두려움 없음을 얻으려 함이며,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얻으려 함이며, 일체 세간을 구호하려 함이며, 큰 자비를 청정히 하려 함이며, 열 가지 힘과 남음이 없는 지혜를 얻으려 함이며,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히 하여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며, 잠깐 동안에 일체 삼세를 알고자 함이며, 큰 법륜을 굴려 두려움을 없게 하려는 까닭이니라."

3) 무슨 인연으로 하는가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큰 자비심으로 머리를 삼아 지혜가 늘고, 공교한 방편에 포섭되고, 가장 훌륭한 깊은 마음으로 유지되며, 여래의 힘이 한량없으며, 잘 관찰하고 분별하며, 용맹한 힘과 지혜의 힘으로 걸림 없는 지혜가 앞에 나타나고, 자연의 지혜로써 교화하나니, 광대하기가 법계와 같고 끝없기가 허공과 같아서 오는 세월의 끝까지 다하느니라."

4) 어떤 모양이 있는가

"불자여, 보살이 처음 이런 마음을 내고는 곧 범부의 처지를 뛰어나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서 여래의 집에 태어나나니, 그 가문의 허물을 말할 이가 없으며, 세간의 모든 갈래를 떠나서 출세간의 도에 들어가며, 보살의 법을 얻고 보살의 자리에 머물며, 삼세가 평등한 데 들어가 여래의 종성種性에서 결정코 위없는 보리를 얻느니라. 보살이 이와 같은 법에 머물면 보살의 환희지歡喜地에 머물렀다 하나니, 동動하지 않는 법과 서로 응하는 연고이니라."

5) 환희하는 모양을 밝히다.

"불자여, 보살이 환희지에 머물면 여러 가지 환희와 여러 가지 청정한 신심과 여러 가지 즐거움과 여러 가지 희열과 여러 가지 기쁨과 여러 가지 뛰놂과 여러 가지 용맹과 여러 가지 투쟁이 없음과 여러 가지 시끄러움이 없음과 여러 가지 성내지 않음을 성취하느니라."

6) 환희하는 까닭을 밝히다.

"불자여, 보살이 이 환희지에 머물고는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므로 환희하고, 모든 부처님의 법을 생각

2) Pra+muditā 지극한 기쁨

하므로 환희하고, 모든 보살을 생각하므로 환희하고, 모든 보살의 행行을 생각하므로 환희하고, 청정한 모든 바라밀다를 생각하므로 환희하느니라. 모든 보살의 지위가 수승함을 생각하므로 환희하고, 보살의 깨뜨릴 수 없음을 생각하므로 환희하고, 여래의 중생 교화함을 생각하므로 환희하고, 능히 중생에게 이익을 얻게 함을 생각하므로 환희하고, 일체 여래의 지혜와 방편에 들어감을 생각하므로 환희하느니라."

"또 이렇게 생각하나니, 내가 모든 세간의 경계를 점점 여의므로 환희하고, 일체 부처님을 친근하므로 환희하고, 범부의 처지를 멀리 여의었으므로 환희하고, 지혜의 자리에 가까워지므로 환희하고, 모든 나쁜 갈래를 아주 끊었으므로 환희하느니라."

"일체중생의 의지할 곳이 되므로 환희하고, 일체 여래를 친견하므로 환희하고, 부처님의 경계에 태어났으므로 환희하고, 일체 보살의 평등한 성품에 들어갔으므로 환희하고, 온갖 무섭고 털이 곤두서는 일을 멀리 여의었으므로 환희하느니라."

7) 환희지를 얻고 두려움을 멀리 떠나다

"무슨 까닭인가, 이 보살이 환희지를 얻고는 온갖 공포를 모두 멀리 떠나느니라. 이른바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공포, 나쁜 이름을 들을 공포, 죽을 공포, 나쁜 갈래에 떨어질 공포, 대중의 위덕威德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공포이니라. 이와 같은 공포를 영원히 다 멀리 떠나느니라."

8) 두려움을 떠나는 까닭

"왜냐하면 이 보살이 '나'란 생각을 떠났으므로 오히려 내 몸도 아끼지 않거든 어찌 하물며 재물이겠는가, 그러므로 살지 못할까 하는 공포가 없느니라. 다른 이에게 공양을 바라지 않고 오직 일체중생에게 보시만 하나니, 그러므로 나쁜 이름 들을 공포가 없느니라. '나'란 소견을 멀리 떠나 '나'라는 생각이 없나니, 그러므로 죽음의 공포가 없느니라. 자신이 죽은 뒤에 결정코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들을 떠나지 아니할 줄 아나니, 그러므로 나쁜 갈래에 떨어질 공포가 없느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일체 세간에서 동등할 이도 없거늘 어찌 하물며 나보다 수승할 이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대중의 위력을 두려워할 것이 없느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공포와 털이 곤두서는 일을 멀리 떠나느니라."

9) 3종 선근 성취의 31법

(1) 10구, 신심을 성취하다

"불자여, 이 보살의 대비大悲로 으뜸을 삼는 광대한 뜻을 저해할 이가 없고, 점점 부지런히 모든 선근을 닦아서 성취하느니라."

"이른바 신심이 느는 연고며, 청정한 신심이 많아지는 연고며, 지혜가 청정한 연고며, 믿음이 결정한 연고며, 가엾이 여기는 생각을 내는 연고며, 크고 인자함을 성취하는 연고며, 고달픈 마음이 없는 연고며, 부끄러움으로 장엄하는 연고며, 유순하고 화순함을 성취하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연고이니라."

(2) 9구, 수행을 성취하다.

"밤낮으로 선근을 닦아 만족함이 없는 연고며, 선지식을 친근하는 연고며, 항상 법을 사랑하는 연고며, 많이 알기를 구하여 만족을 모르는 연고며, 들은 법대로 바르게 관찰하는 연고며, 마음에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는 연고며, 이양이나 명예나 공경받기를 탐하지 않는 연고며, 온갖 살아갈 물품을 구하지 않는 연고며, 보물 같은 마음을 내어 싫어함이 없는 연고이니라."



(3) 12구, 회향을 성취하다.

"온갖 지혜의 지地를 구하는 연고며, 여래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불법佛法을 구하는 연고며, 모든 바라밀과 도를 돕는 법을 구하는 연고며, 모든 아첨과 속임을 여의는 연고며, 말한 대로 행하는 연고며, 진실한 말을 항상 두호하는 연고며, 여래의 가문을 더럽히지 않은 연고이니라."

"보살의 계율을 버리지 않는 연고며, 온갖 지혜의 마음을 내어 산과 같이 동하지 않는 연고며, 일체 세간의 일을 버리지 않고 출세간의 도道를 성취하는 연고며, 보리菩提를 돕는 부분법을 모으되 만족함이 없는 연고며, 높고 높은 수승한 도를 항상 구하는 연고이니라."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이 십지의 법을 깨끗이 다스림을 성취하는 것을 보살의 환희지에 편안히 머문다고 이름하느니라."

연민심(karuna), 不二의 空性의 자각, 발보리심(Bodhi citta, 이무애)의 세 가지를 갖춤으로 지극한 기쁨을 얻는다. 1) 존귀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억념憶念하면서 기뻐하고, 2) 보살과 보살의 덕행을 억념하면서 기뻐하고, 3) 청정한 바라밀과 수승한 보살지를 억념하면서 기뻐하고, 4) 보살의 불퇴전과 여래의 가르침에 따름을 억념하면서 기뻐하고, 5) 중생이 이익을 얻음을 억념하면서 기뻐한다. 그에 더하여 보살은 1) 일체세간의 경계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고, 2) 부처님의 경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며, 3) 어리석은 범부의 상태에서 멀어지며, 4) 앎의 경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된다. 5) 일체의 악도와 고통스러운 곳에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짐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6)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됨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7) 모든 부처님이 머무는 경계를 가까이서 친견하고, 8) 모든 보살의 평등성에 도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된다. 9) 또한 '나에게 있어서 모든 두려움 공포 놀라움은 없다'라고 알면서 기쁨을 일으킨다.

〈다음호에 이어서〉

불상 구분하는 법

진정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 법신불法身佛인 비로자나불은
《화엄경華嚴經》에 등장하는 부처님으로서
《대일여래경大日如來經》에서는 대일여래大日如來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법신불이란 진리 그 자체를 인격화시킨 것이다.
그러기에 법신불이라는 그 자리에는
본래 부처도 중생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지만
중생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법신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부처님이시다.
비로자나불상 은 주로 주먹을 가슴에서 아래로
포개고 밑의 왼손 검지를 오른손 주먹으로 감싸거나,
주먹 쥔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싼 지권인智券印을
하고 계신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비로자나불상은 대광명전大光名殿,
대적광전大寂光殿, 비로전毘盧殿등에 모셔지며
협시보살로는 문수보살文殊菩薩과
보현보살普賢菩薩을 좌우보처로 하며 주불전에
모실 경우에는 보신불報身佛로서 노사나불盧舍那佛,
응화신불應化身佛로서 석가모니불과 함께
삼신불을 모시는 경우가 보편화되어 있다.

◆ 아미타불은《무량수경無量壽經》이
중심이 되는《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을 비롯하여
대승경전의 1/3에 등장하시는 대승불교에 있어서
불타 신앙의 중심이 되는 보신불으로서 중생을
구원하고자 원을 세우시고 수행을 하시어 극락세계를
완성하시고 지금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극락세계에서
영접하여 성불도成佛道로 인도하시는 부처님이시다.
아미타불 이외에도 무량수불, 무량광불 등 12개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시기도 한데《화엄경》에
등장하는 노사나불盧舍那佛 또한 이 아미타불의
이명異名으로 사료된다.
아미타불의 수인은 오른손은 들어 올려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왼손은 손바닥을 보이며 늘어뜨리는
아미타 정인定印과 구품인九品印이 보통이다.
협시보살로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이 보편적이기는 하나
관세음과 지장보살地藏菩薩을 좌우에 배치하거나,
또는 좌우로 네 보살씩 팔대보살(관음(觀音),
세지(勢至), 문수(文殊), 보현(普賢), 미륵(彌勒),
지장(地藏), 제장애(諸障碍), 금강장(金剛杖))이
배치되기도 한다.
그리고 아미타불상을 봉안한 전각을
무량수전無量壽殿, 극락보전極樂寶殿,
극락전極樂殿, 미타전彌陀殿이라 부른다.

◆ 석가모니불은 중생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2600여 년 전에 오신
화신불化身佛로서 불법을 이 땅에 심어 놓고 가신
역사적인 부처님이시다 .
석가모니 불상의 특징은 입상일 경우에는
시무외여원인施無畏與願印이라 하여 오른손을
들어 손바닥을 보이면서 손가락을 위로 펴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 손바닥을 밖으로 보이는
수인을 하시며, 좌상座象일 경우에는 왼손 위에
오른손을 놓고 엄지를 맞대는 선정인禪定印이나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향하게 하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하시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석가모니 불상은 대웅전大雄殿,
영산전靈山殿, 응진전應眞殿, 나한전羅漢殿,
팔상전八相殿의 주불로 모셔진다.
또 협시보살로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좌우로배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
관세음보살과 허공진보살虛空盡菩薩 또는
관세음보살과 미륵보살상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 약사여래藥師如來는 중생의 원에 응하여
영험을 보이시는 보신불의 일종으로서 중생들이
온갖 아픔을 치료하여 오래 살도록 해주시며
재난과 근심을 없애주고 옷과 음식을 많이
주어서 잘 살도록 해주시는 부처님이시다.
약사여래유리광불 또는 대의왕불大醫王佛이라고도
한다.
약사불상은 다른 불상과는 달리 손에
약함藥函인 지물持物을 들고 계신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협시보살로는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 또는 약사12지신상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미륵불彌勒佛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56억 7천만년 후에 이 세상에
강림하시어 모든 중생들을 빠짐없이
성불시키신다는 부처님으로서,
현재는 부처님들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머무시는 하늘인 도솔천에 계시며 설법을
하고 계신다는 부처님이시다.
그리고 미래의 부처님으로서 모든 중생을
성불도로 이끄실 부처님으로서 미륵불을
봉안할 때에는 미륵전彌勒殿에 모시고,
아직 도솔천에서 시기를 기다리시는
보살의 모습인 미륵보살로서 봉안할 때에는
용화전龍華殿에 봉안한다.

설중방우雪中訪友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어제 밤부터 날리던 눈송이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졌다.
간밤의 폭설은 온 세상을 설국으로 바꾸어 놓았다.
앞산은 히말라야 설산이 되었고, 들녘은 하얀 소금밭이 되었으며
나무는 백의白衣를 입은 듯 순수하다. 과연 누구의 조화란 말인가.
하룻밤 사이에 천지간의 풍경은 온통 화이트 톤이 되어 있다.
올겨울 들어 처음 맞이하는 푸짐한 눈 구경이다.
아무런 발자국도 남기지 않은 새벽의 눈밭은 고요하다.
마치 태초의 신비를 마주하는 것 같다. 그런 신비를 보존하기 위해 먼저 눈길부터
만들고 일과를 시작한다. 통행할 수 있는 길만 터놓고 다른 공간을 여백으로 남겨 두게 되면 멋진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나의 속을 모르고 눈 밟는 소리가 좋다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발자국을 내는
어른들을 보자면 웃고 있지만 슬프다. 눈밭에 어지러이 나 있는 족적은 태초의 침묵을 망치는 낙서나 다름없다.
나이 들어 깊은 암자에 살게 되면 그때는 소롯길만 남겨 놓고 온통 눈밭에 파묻혀 살고 싶다.
인적 끊어진 외진 곳에서 군불 때고 눈 치운 뒤 차 마시며 없는 듯 문 닫고 한나절을 보내면
참 호젓할 것 같다. 아무도 찾는 이 없어 눈 치울 걱정도 없을 것이니 그야말로 무사한인無事閑人이지 않을까.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은 쓸고 돌아서면, 그 자리에 또 쌓여 길을 냈는데도 이내 사라지고 만다.
이번엔 함박눈이 쏟아져서 설경 자체가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 방문할 손님이 예약되지 않았다면
눈이 길을 덮을지라도 신경 쓰지 않고 다실에 앉아 종일토록 눈 구경을 하고 싶은 날이었다.
만약, 오늘 밤에 달이 공처럼 떠올라 설원을 비추어준다면 그 분위기에 흠뻑 취해 문밖을 서성이며
옛 벗을 그리워할지도 모르겠다. 어디 일광욕만 있으랴, 월광욕도 있는 법이다.
덕지덕지 달린 욕심들을 달빛 아래 내려놓아도 좋겠다.
일전에 계룡산에서 은거하는 노스님이 족자 하나를 선물로 두고 갔는데 펼쳐보니
'설중방우도雪中訪友圖'였다. 초옥의 지붕까지 눈이 쌓여 있고, 저 멀리 눈보라를 헤치고
벗이 찾아오는 그림이다. 예로부터 문인들의 화제로 널리 사랑받아 지금까지 여러 작품들이 전해온다.
고려의 문호 이규보가 '눈 내리는 날 벗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다'는 시를 적었는데,
이 내용을 음미하면 그림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다.

눈빛이 종이보다 더 맑아서
막대기 들어 이름 써 두고 가니
바람아, 부디 눈 쓸어가지 말고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려주렴

온 사방이 눈으로 가득한 날 친구를 찾아갔으나 외출하였는지 아무런 기척이 없다. 발길을 되돌려 나오려다가
하얀 눈밭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바람에게 부탁한다. 주인이 돌아와서 볼 수 있도록 내 이름을
지우지 말라고. 긴 막대로 '나 왔다 감'이라고 적어 놓는 모습을 상상해보니 가슴이 따스해진다.
이런 벗을 사귀며 우정을 나눌 수 있다면 홀로 지낸다 하더라도 삶이 구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곳에서 이웃 절 스님들과 왕래하며 지내는데 공교롭게도 법명에 눈 설雪자가 들어있다.
이런 연유로 모임을 '삼설회三雪會'로 짓고 가끔 공양 자리도 만들어 차를 나누기도 한다.
나 또한 이 자리에 뜻을 같이 하기 위해 자호自號를 '설묵雪默'으로 정하여 교류하며 지낸다.
가까운 곳에 마음을 열어주는 벗이 있어서 위로가 된다. 오늘처럼 눈이 내리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안부를
묻는다. 내암리의 스님은 찻물 끓이며 나를 부르기도 하고, 추정리의 스님은 산창山窓으로 즐기는 설경이
아름답다며 자랑하기도 한다. 그러나 폭설이 내리면 암자로 가는 길이 미끄러워 서로 만나지는 못하고
생존 소식을 통신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끼리 서로 어깨를 내밀며 따스함이 되어주어야 하듯,
수행자에겐 수행자끼리 서로 기대여야 도심道心이 성글어지지 않는 법.
시인 안도현 님은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빗쭈빗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따뜻한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라고 말했다. 누구나 눈 내리는 날 그리운 사람이 한 두 명은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아직은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세상이라 다행이다.



제50회 승가대학 졸업식

불기2565(2021)년 2월 25일 명월료에서 제50회 승가대학 졸업식이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 승가대학장 원오스님, 기획국장 진원스님과 대중스님들께서 함께한 가운데 봉행되었습니다.

졸업식은 교무국장 두진스님의 사회로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졸업장 수여, 표창장 수여, 격려사, 사홍선원, 사진 촬영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졸업식으로 승가대학 3명의 학인 스님들이 졸업증서와 표창장을 시상하였습니다.

승가대학에서의 시간들이 앞으로의 수행생활에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① ② ③ ④

1. 2월 1일 보월대선사다례
2. 2월 3일 입춘기도 및 삼재풀이
3. 2월 6일 신축년 새해맞이 정월대보름 사천왕재
4. 2월 6일 동안거해제

2021. 3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삼일절 음 1.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다도반 법회	2 19 합창단 법회	3 20 혜정대종사다례	4 21	5 경칩 22	6 23 어린이법회
7 24 관음재일 관음회법회	8 25	9 26	10 27	11 28	12 29	13 2.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어린이법회
14 2	15 3 신중기도회향 다도반 법회	16 4	17 5	18 6	19 7	20 춘분 8 약사재일 출가재일 어린이법회
21 9	22 10	23 11	24 12	25 13 법주회 법회	26 14	27 15 보름 열반재일 어린이법회
28 16 미륵재일철야기도	29 17	30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31 19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7시 30분, 8시 30분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미륵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후 3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후 2시 3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